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⑲ 고구려의 불상

16.2㎝에 담긴 고구려의 비밀

경남 의령에서 발견된 연가7연명 금동불입상.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상 중 가장 오래 된 불상으로 고구려 안원왕(539년) 때 만들어졌다.

고구려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한 국가로 주목된다. 광개토대왕을 시작으로 장수왕(413~491) 때부터 양원왕(545~558)에 이르는 시기까지 고구려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요하(遼河) 동쪽으로부터 만주 전역에 이르는 그들의 북방 영토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고구려는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규모와 광범위한 문화적 발전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발전 시기에 나타난 불상이 연가(延嘉)7연명금동불입상이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불상 〈最古〉
광배 뒷면에 독자 연호 새겨 있어

높이가 16.2㎝ 밖에 되지 않는 이 자그마한 불상은 경상남도 의령에서 발견됐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불상 중 가장 오래된 불상이다. 광배(光背) 뒷면에는 47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연가(延嘉) 연간의 7째 해인 기미(己未)년에 고구려 수도 평양에 있던 동사(東寺)라는 절에서 만들어 유포한 천불(千佛) 중 29째 부처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배 뒷면에는 "연가7년인 기미년(539) 고려국(高麗國: 고구려)의 수도 낙양(樂良: 평양)에 있던 동사(東寺)의 주지스님 경(敬)과 그 제자 승연(僧演)을 비롯한 사도 40인이 함께 현겁천불(賢劫千佛)을 조성해 유포하기로 했는데 제29불인 인현의불(因現義佛)로 비구 법영(法穎)이 공양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천불을 조성하는 신앙은 동아시아에 불교가 수용된 초기부터 시작 됐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현의불(因現義佛)' 은 〈현겁경(賢劫經)〉에 등장하는 명호이다. 〈현겁경〉은 3세기 말 축법호(竺法護)가 번역한 경전이다. 돈황보살, 월지보살로 불리는 축법호는 구마라집 이전에 중국에서 가장 활발한 경전 번역을 이끈 인물이었다.

동아시아는 인도나 서역 국가들과는 달리 대승불교 사상을 초기부터 깊이 받아들였다. 대승불교 사상중 하나가 무수한 부처가 등장하는 다불(多佛)신앙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 무수한 부처들이 등장하는 이러한 사상은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이다. 〈현겁경〉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신앙이 고구려에서 다시금 펼쳐지게 된 것이다.

사실 이 불상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연가(延嘉)의 연호는 중국 연호가 아닌 고구려의 연호다. 연호를 따로 사용한다는 것은 당시 동아시아적 질서에서 독립된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고구려 연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소실된 탓에 이 연호의 정확한 연대는 추정만 할 뿐이다. 6세기의 기미년이 539년이나 599년 인데 우리는 당대의 중국불상과의 양식적 비교를 통해 539년이 아닐까 추정할 뿐이다. 539년 이라면 고구려의 안원왕(安原王: 531~544) 때에 해당된다.

연가7연명 금동불입상은 갸름한 얼굴에 강인함과 온화함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나발의 형태로 나타나 있으며, 육계도 인상적이다. 왼손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는 모습은 삼국시대 불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이다.

옷자락은 당시 신이라는 장식끈을 갖고 있던 중국 북위의 불상들의 특징에 비해 표현하지 않는 면을 보이고 있는데 고구려 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볼 수 있다.

연가7연명 금동불입상은 불교가 수용됐던 초기 불교가 어떻게 이 땅에 퍼져 나갔는지를 말하고 있다. 무수한 불상을 조성하고 절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유포하고자 한다는 표현에서 보이듯 그 역동적인 불교가 이 땅에 불교를 오롯이 전할 수 있게 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64

부처님처럼 걷고 싶어라

어느 날, 홀로 알게 된 세상이 길을 걷게 하고, 고독한 시간을 견디며 끊어낸 생각들은 아득한 시간을 건너온다. 그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고, 그 날 새벽하늘에 빛나던 별빛은 오늘도 빛나고 있다.

작년 12월 16일. 새벽별이 진 지리산 자락에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들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이 홀로 알게 된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길 위에 세웠을까. 길 위에 방부를 들인 납자들의 화두는 '이뭣고' 도 '뜰앞에 잣나무' 도 아니었다. 그들의 화두는 '위기의 사바' 였다. 고독한 시간이 길 위에서 그들을 기리고, 그들이 끊어낼 생각들이 아득한 시간을 시작하고 있었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아득한 시절, 홀로 알게 된 세상 때문에 고독해야했던 그를 떠올리며 새벽길을 걷고 싶다.

사진부 차장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26도 용선도(龍船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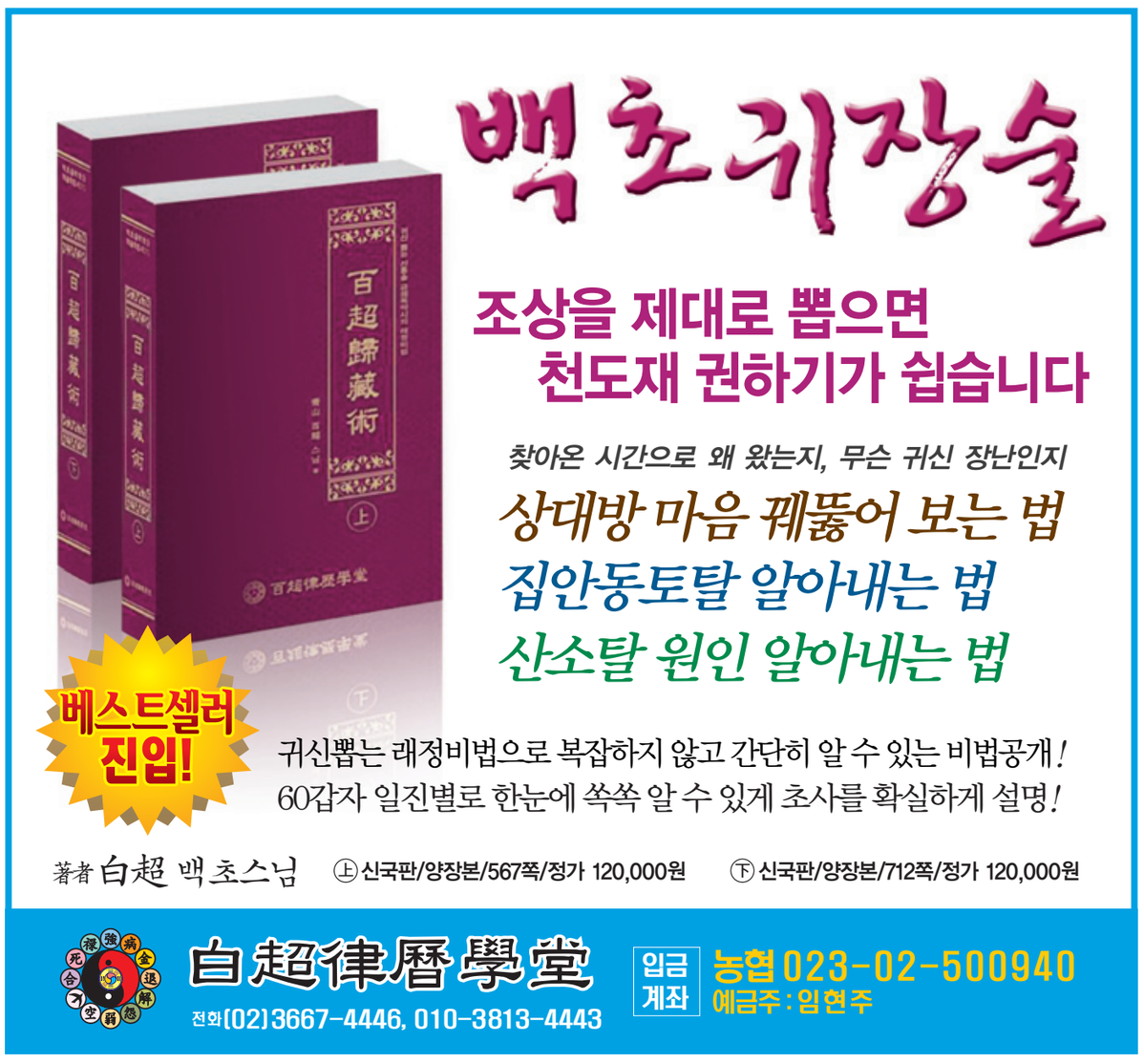
고판화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아미타경은 덕주사본(강원도 유형문화재 153호)과 용천사본(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154호)이며 지금까지 소개됐던 도상들은 덕주사본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소개한 도상들을 간추려 보면 제1도에서 제25도까지의 도상들은 제1 · 2도는 석가여래가 기수급고독원에서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설법하는 장면이며, 제3도부터 10도까지는 극락의 장엄함을 묘사하고 있으며, 제11~13도는 아미타불에 대한 설명이고, 제14~19도는 다른 부처님이 증명해 아미타불의 믿음을 권하는 내용이다. 제20도는 칭명염불을 권하고, 제21도는 정토왕생의 이익을 설명하고 있다. 제24도는 석가와 시방제불이 서로 찬탄하고 믿음을 권하는 내용을 도해한 것이며, 제25도는 설법을 맺는 장면으로 구성돼있는데 이 구성들은 덕주사본과 용천사본이 비슷한 도상을 유지하고 있다. 제26장에서 소개하고자하는 도상인 용선도는 용천사 판본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도상으로 목판 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설아미타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삽화 중 하나로 아미타부처님이 죽음에 이른 중생들이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반야용선을 보내 중생들을 극락으로 왕생시키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염불수행자들이 반야용선에 타고 있으며,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극락으로 염불수행자들을 태운 반야용선을 래영(來迎)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다른 아미타경의 판본에는 보이지 않는 용천사 판본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도상이다. 고판화박물관에서는 노인 판화학교 수강생들과 함께 극락으로 인도하는 반야용선을 목판으로 직접 만드는 체험을 통해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교육을 실천해 보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우리 불자들도 이 용선도를 활용해 우리가 극락으로 타고가야 할 반야용선을 직접 그려보거나 목판화를 제작한다면 교육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불설아미타경〉 제26도 용천사판, 1572년간행, 반곽(半郭) 26.5×18.7㎝